

밀원 가꾸기와 우리말 쓰기

이명렬 · 농학박사 / 농업과학기술원 잠사양봉소재과 양봉연구실장

봄이 찬란합니다.

한반도의 겨울 사립문이 봄별로 활짝 열리면서 유채, 자운영, 동백, 매화, 진달래, 철쭉, 살구, 복숭아, 사과, 배, 수수꽃다리, 등나무, 박태기, 다래, 산딸기가 줄지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양봉농가들이 학수고대하던 아까시나무 꽃이 활짝 피어 향긋한 꿀 냄새로 온 천지가 진동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제발 꽃마다 꿀이 평평 쏟아지기를...

벌통 옆에 앉아 벌이 드나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벌통 문으로 달려 나와 쏘살같이 하늘로 날아가는 꿀벌의 비상(飛上)과 꽃망을 깊숙이 스며있는 꽃꿀을 빨아 꿀주머니에 가득 넣고 뒷다리에 온갖 색채의 꽃가루덩이를 달고 들어오는 일벌들의 분주한 모습은 펴 다정스럽고 무척 생동적입니다. 봄철 벌통 문 앞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에 심취할 때마다 꿀벌과 맺은 인연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6천만년의 오랜 기간 동안 꿀벌은 꽃을 피워서 씨와 열매를 맺는 속씨식물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진화(共進化)를 해왔습니다. 이들 꽃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꽃가루받이를 해주는 대가로 꿀과 꽃가루를 거둬들여 자신의 식량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꿀벌은 다른 소, 돼지 같은 가축이나 누에 같은 곤충처럼 축사나 실내에서 사료만을 공급해서 사육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벌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밀원식물이 필요합니다. 국토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대륙이 바다로 뻗어있는 반도에 위치하며 9,000여종의 각종 식물이 자생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밀원식물이 입체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봉이 발달하기에 좋은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양봉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와 자본과 노동이 투입된 농업 품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꽃을 따라 벌통을 옮겨 다니는 뜨내기 수렵업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조화되고, 농작물 결실 증대와 식물생태계 보전을 담당하는 양봉산업의 임무와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안목이 부족했던 정부의 책임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귀중한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결사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양봉농가의 책임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밀원의 개화시기를 따라 벌통을 옮기면서 한철 꿀 생산에만 주력하고, 꿀에서 얻은 수익을 확대 재생산을 위한 기반투자 즉, 양봉장이 들어설 토지를 구입하고 밀원가치가 큰 경제수종을 심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소비자에게 팽배한 꿀 품질에 대한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점, 이것들이 겹쳐져 결국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국민과 정부의 관심 밖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양봉가 스스로 양봉산업의 근간이 되는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양봉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 투자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 없이 국민과 정부의 후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한반도 침략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민족정신에서 분출되는 울분이야 감출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집요한 책략과 과거 행적을 꿰뚫어보면 감정을 앞세운 일회성 시위행사보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차분하게 장기적이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미처 청산하지 못한 일본의 잔재들을 찾아서 말끔히 정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오년 전 일입니다.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동료 연구원이 무슨 학술행사 관계로 일본 지도교수를 초청하면서, 학술행사를 마친 후 방문하고 싶은 곳을 미리 알려주면 아내 계획을 잡겠다는 제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교수 대답을 전해들은 우리는 가슴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관광은 필요 없고, 한국의 수도 서울 종로 한복판의 가라오케(노래방)에서 일본 맥주를 마시며 일본 가요를 실컷 부르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제국주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일본 지식인의 속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양봉에서만큼은 그 생산규모 면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뒤질 것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들이 양봉에서 무심코 쓰는 말 중에 일본식 한자어들이 미처 청산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이 양봉용어들을 마지못해 사용할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곤 합니다.

양봉에서 쓰는 말 중에 일본식 한자표기를 한 자음으로 발음하여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巢床), 소비(巢脾), 왕대(王台), 복면포(覆面布)라는 용어입니다.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양봉을 갓 시작하는 분들 심지어 농업관계자들도 '소상', '소비'와 같은 말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벌통', '벌집(판)', '왕집'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넓게 보면 '단상, 계상'도 우리말로 지은 '홀통(기본통), 덧통'으로 순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사람들이 자신들의 양봉용어를 아직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심히 염려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락(部落)', '원족(遠足)'이란 말과 '자승(自乘)'이라는 수학용어를 당연한 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마을', '소풍', '제공'이란 우리말이 있음을 알았고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동안 고속도로 길가에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좁은 길을 '노견(路肩)'으로 일컫다가 요즘 우리말 '갓길'을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서도 '우동'이란 말은 점차 들어가고 '가락국수'가 사용됩니다. 농업에서도 '녹비(綠肥)' 대신 '꽃거름'이란 말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해방된 지 60년이 다 지나서야 어렵게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힘써 외치는 뒷면에서 일본이 뿌려놓은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말과 혼을 되찾기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나무 밑에 벌통을 옮겨 놓고 하늘만 쳐다보며 꿀을 뜨는 방식으로는 양봉업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양봉업의 소임과 공익적 기능을 널리 알려서 남미와 중국의 값싼 꿀의 수입개방을 저지하고, 반면 청정한 최고급 꿀 생산으로 세계 시장과 겨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림 당국의 지원 아래, 우리 양봉인의 땀을 모아 밀원을 직접 심고 가꾸는 모습을 보일 때 농업에서 홀대받지 않고 우뚝 서서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노령화되고 황폐화되는 농촌에 아름다운 밀원식물의 꽃을 피워서 고부가가치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환경친화형 양봉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 민족의 마음과 정신이 담긴 그릇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의 침략역사를 비비꼬아서 어린 학생들 교과서에 신고 있는 일본사람들이 남겨둔 한자 양봉용어는 속히 우리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전문가나 초보자, 소비자, 어린이 모두 친근하게 다가가는 우리말 양봉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벌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두서없이 쓰게 된 이 글이 양봉인 여러분의 집에 닿을 무렵, 방방곡곡에서 아카시아 꿀 대풍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

